



Original Article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영주^{ID}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Nursing Laws

Youngju Jee^{I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jeeyoungju@kyungnam.ac.k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regarding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law.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07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attending K University in C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individual questionnaires from May 15 to May 25,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ver. 23.0. The general characteristics, political efficacy, self-leadership, and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law were calculat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elf-leadership ($\beta=.26, p=.007$) and grades ($\beta=.20, p=.032$) were found to b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law.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law and lay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that promotes self-leadership and enhances academic capacity from the time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Political Efficacy, Self-leadership, Nursing Students, Participation, Nursing Law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은 한국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최근 들어 더욱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21년 3월 여야에 의해 발의된 간호법(안)은 2022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계류되었고, 이후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여 결국 부결되었다가 드디어 2024년 8월 28일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쳤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논쟁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간호사의 권익문제를 넘어 여야 간, 의료직군 간, 그리고 지역사회 간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1]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현행 의료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에 속하며, 그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되었다[2]. 요약

하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직접 간호에서 환자 교육, 상담,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이다. 그러나 의료법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고,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 서비스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계는 간곡하게 간호법 제정을 원했던 것이다.

2022년 국제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국가별 간호사 수 평균인 9.7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3].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임금은 평균에 비해 낮으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높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많아 업무의 부담은 매우 높다[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경우 인력배치가 부족하며,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감염상황과 같은 위해 근무환경에서도 간호사들은 고군분투하며, 환자의 직접간호를 위해 가히 폭력적 근무환경이라고 표현될 만한 근무조건을 감당하며 버거운 시간을 보내왔었다[5].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간호 이탈률을 높이며 현장 간호사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간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6]. 또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향상시켜 안전한 인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질 높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6]. 간호사와 간호학생은 간호법의 직접적인 이해자이자 주체이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각별히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인 간호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영향 요인 규명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인 간호조직의 정치참여는 간호조직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보건정책을 구조화하고 법과 같은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과 정치효능감은 이에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7]. 또한 정치적 참여를 ‘정치행동’차원에서 살펴보면 리더십, 자기표현, 주장 및 정치 옹호, 정치참여, 정치개입의 속성이 포함된다[8].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제도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를 말한다[9]. 정치효능감은 정치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정서로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정치효능성 혹은 자신감을 말하고,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대한 일반의식을 말한다[9].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참여와 관련된 활동에 더 적극적이며, 정치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더 높았다[7,10]. 또한 정치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10], 신뢰와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정치효능감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간호법 제정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더 강한 지지와 참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혁신적인 행동과 변화 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다[12]. 셀프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생각과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13]. 이는 타인의 지시나 강요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며[14], 협력적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셀프리더십은 회복탄력성을 높이고[16],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조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바탕으로 한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경험 유무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습득 유무에 따른 간호법 제정 인식 차이 연구[18],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인식 분석[19], 비보건인의 간호법 제정 인식 내용분석[20] 등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현상의 확인에 그쳤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미래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C시 소재 K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7개(일반적 특성 5문항, 정치효능감, 셀프리더십)로 산출한 결과 최소 103부가 필요하였다. 이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약 125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1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 측정도구는 Nam과 Huh [21]가 개발한 정치효능감 도구를 Shin [22]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개 문항이며,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11점에서 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Nam과 Huh [21]의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 Cronbach's α 값은 0.87, 외재적 효능감 Cronbach's α 값이 0.80이었고, Shin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 [23]가 개발한 설문지를 Kim [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이며,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18점에서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23]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Kim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3)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Kang [25]이 개발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23문항을 이용하였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각 문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문항의 평균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Lee와 Kang [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을 이용하여 설문지(Naver Forms)를 사용하였다. K 대학 간호학과 1, 2, 3, 4학년 대표에게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학년 전체 단톡방에 설문지 주소를 공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할 경우 웹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했으며, 비밀보장,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익명성, 연구목적으로만 자료가 사용됨 등에 대해 첫 화면에 제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의 익명성, 기밀성 보장, 연구 참여 및 철회 권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온라인 설문창을 공지하였고, 희망 학생들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설문에 참가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정치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연령, 정치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본 연구대상의 연령은 평균 24.16 ± 5.37 세였으며, 22세 이하가 55명(51.4%)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83명(77.6%)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58, p = .116$). 학년은 3학년이 44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25명(23.4%), 4학년이 20명(18.7%), 1학년이 18명(16.8%) 순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1.81, p = .181$).

학점은 3.0 이상이 98명(91.6%)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학점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99, p = .003$). 간호학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3명(58.9%)이었고, '대체로 불만족한다'가 44명(41.1%)을 차지했으며,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83, p = .006$).

임상실습경험은 '있다'가 64명(59.8%)으로 과반수였고,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2.83, p = .006$)(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pm$ SD	ANLL [†]	
			M $\pm$ SD	t (p) or F (p)
Age(year)		24.16 $\pm$ 5.37		
Gender	Male	24(22.4)	4.60 $\pm$ 1.16	-1.58 (.116)
	Female	83(77.6)	4.92 $\pm$ 0.77	
Academic year	Freshman	18(16.8)	4.88 $\pm$ 1.11	1.81 (.181)
	Sophomore	25(23.4)	4.98 $\pm$ 0.63	
	Junior	44(41.4)	4.92 $\pm$ 0.67	
	Senior	20(18.7)	4.50 $\pm$ 1.24	
Grade	3.0 or above	98(91.6)	4.92 $\pm$.72	-2.99 (.003)
	Less than 3.0	9(8.4)	4.04 $\pm$ 1.76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Generally satisfied	63(58.9)	5.04 $\pm$ 0.58	-2.83 (.006)
	Generally dissatisfied	44(41.1)	4.57 $\pm$ 1.14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64(59.8)	4.85 $\pm$ 0.82	0.27 (.791)
	No	43(40.2)	4.88 $\pm$ 0.96	

[†] ANLL=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2. 정치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정도

정치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5 ± 0.79 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94 ± 0.49 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85 ± 0.88 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Table 2).

Table 2. Political Efficacy, Self-Leadership, and 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N=107)

Variables	Range	Min.	Max.	M±SD	Item M±SD
Political efficacy	1-5	11	54	33.51 ± 8.70	3.05 ± 0.79
Self-leadership	1-5	42	90	70.95 ± 8.85	3.94 ± 0.49
ANLL [†]	0-5	29	116	111.50 ± 20.20	4.85 ± 0.88

[†]ANLL=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3. 연령, 정치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연령, 정치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연령($r=-.20, p=.035$), 정치적 효능감($r=-.19, p=.049$), 셀프리더십($r=.3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and 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N=107)

Variables	ANLL [†]	Age	Political efficacy	Self-leadership
r (p)				
ANLL [†]	1			
Age	-.20 (.035)	1		
Political efficacy	-.19 (.049)	.05 (.623)	1	
Self-leadership	.35 (<.001)	-.02 (.835)	-.23 (.019)	1

[†]ANLL=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4.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변수인 연령, 학점 및 간호학 만족도를 포함시켰고, 학점과 간호학 만족도의 경우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정치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을 추가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1.02~1.12)으로 나타났으며, 공차 한계는 0.89~0.98로 0.1 이상을 충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계수는 1.9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beta=.26, p=.007$)과 학점($\beta=.20, p=.032$)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점이 3.0 이상일 경우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88,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wareness of Nursing Law Legislation

(N=10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9.75	20.55		3.39	.001
Age(year)	-0.37	0.33	-.10	-1.11	.270
Political efficacy	-0.23	0.21	-.10	-1.11	.269
Self-leadership	0.58	0.21	.26	2.76	.007
Grade (3.0 or above) [†]	14.18	6.51	.20	2.18	.032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Generally satisfied) ^{††}	7.14	3.68	.18	1.94	.055

R²=.225, Adj R²=.187, F=5.875, p<.001[†] Dummy variable (3.0 or above=1, Less than 3.0=0), ^{††} Dummy variable (Generally satisfied=1, Generally dissatisfied=0)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 중 임상경험 유무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Park과 Kwon [18]의 연구에서 실습유무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Park과 Kwon [18]의 연구에서는 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임상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해석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27] 추후 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관련 인식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교육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진로에 대한 목표와 확신이 생기게 되므로[28] 본인의 장래 진로와 관련한 법 제정에 대해서도 높이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간호학과에서는 신입학 시기부터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Woo와 Ha [7]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23점인 것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와 달리 Woo와 Ha [7]의 연구에서 3학년 이상의 고학년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고,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간호전문직관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7], 정치 참여와 관련된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정치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7,10]. 같은 도구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Jun 등[26]의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3.07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였으나 미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ramer [29]의 연구에서 2.99점, Vandenhousten 등의 연구 [30]에서 2.44점인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라는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에 연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 차이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간호사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인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참여 노력과 정치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겠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94로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결과는 도구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간호대학생 고학년(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과 Cho [31]의 연구에서 3.65점인 것 보다는 높았고,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Yu와 Lee [32]의 연구에서 3.5점인 것과 비교해서도 높았다. Lee와 Cho [33]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고, Park [34]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점수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Kang과 Kim [35]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나이나 학년으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만학도가 많아진 최근의 간호학과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 면담을 통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나이가 반복 연구를 통한 나이와 학년 등의 어떤 부분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4.8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과 Kwon [18]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경험자들이 3.98점, 임상실습 비경험자들이 3.60점인 것에 비해 아주 높은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2018년 이후 간호대학과 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가 지속

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해 온 결과이며, 특히 2023년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에는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과 학점이었다. 먼저 셀프리더십은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는데,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Jung [14]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성 및 자아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하자면,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크고,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명력이 18.7%로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간호계 스스로가 정치나 정책적 연구주제를 다루지 않았던 원인으로 클뎀터러 이들 주제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고 관계성을 밝혀내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본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과 임상간호사 및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적 관심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자각하고 인식해 봄으로써 간호계의 사회적 입지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선행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한계성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이 스스로의 위치를 다지고 자주적인 성장을 위해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적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현대사회 간호계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의 포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 간호직에 몸담은 간호사들의 보수교육에서도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의 내용을 알고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이 간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간호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해서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간호법 제정에 앞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제정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과 학점이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일부 학생들에 의한 의견이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통한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과 학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상관성이 확립된 창의성,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동아리 활동, 대학생활동 만족도, 리더십 교육, 리더 경험, 리더십 역량의 향상을 통한 셀프리더십 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점의 경우,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외에도 학생 신분의 대상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하는 선행변수이므로 학업을 위한 환경개선 마련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학점 향상을 위한 중재가 적용되었을 때 실제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중재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 정치적 역량 관련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None.

Authors contribution

All work was done by Youngju Jee.

Reference

1. Lee SH, Joo MH. Analysis of media trends and social perceptions on nursing law legis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3;53(4):439-452. <https://doi.org/10.4040/jkan.23030>
2. Medical Law [Internet]. Sejong: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c2021 [cited 2023 Jan 1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3. OECD, Nurses. 2022.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nurses.html>
4. Park KO, Yu M. Experience of nurses participat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1):76-89. <http://dx.doi.org/10.1111/jkana.2017.23.1.76>
5. Ko YJ, Hong-Son GR. Lived experiences toward harmful work environment among clinical nurses: Phenomen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3):173-181. <http://dx.doi.org/10.1111/jkana.2018.24.3.173>
6. Korean Nursing Association. Nursing law bil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n the 26th.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21 April 26. https://www.koreanursing.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ress&no=530&sgroup=499&sfloat=49900&position=46&mode=&find=&search=
7. Woo CH, Ha JO. The effects of political 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3;29(3):263-271.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3.263>
8. Han NK, Kim GS. Concept developmen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0;50(1):81-100. <https://doi.org/10.4040/jkan.2020.50.1.81>
9. Campbell A, Guirin G, Miller W. *The voter decides*. New York. Row, Peterson, and Company; 1954.
10. Jang SJ. The influence of political broadcasting use in youtube on political talk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20;57:89-132. <http://dx.doi.org/10.35731/kpca.2020..57.003>
11. Hong HS, Ryu EY. A study on the effects of trust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Mplus/ Amo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015;14(2):131-155.
12. Lee DH, Jung KS.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innovation behavior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the mediation of job craft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4;24(4):354-370. <http://dx.doi.org/10.5392/JKCA.2024.24.04.354>
13. Manz CC, Sims HP.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80;5(3): 585-600.
14. Lee YJ, Jung KS.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and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8;25(1):391-410.
15. Seo YS, Jeong CY. Effect of meta-cognition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for self-leadership, collaborative prefer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2): 383-392.
16. Byun EK. Effect of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4;10(2):159-166.
17. Lee JS, Hwang CG, Myung H.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job satisfaction : Domestic mold enterprises object.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4;7(1):111-130. <https://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411457612746.page>
18. Park KJ, Kwon M. Th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11):1-18.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1.1>
19. Kim EM, Oh JK, Huh IS. An investigation of the cumulative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on the cognitive funct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alysi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3;53(4):453-467. <https://doi.org/10.4040/jkan.23018>
20. Choi EJ, Park SJ, Lee SW, Park SY, Yang HS, Kim EH, et al. An analysis on the content of non-medical workers'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3;7(1):49-61. <http://dx.doi.org/10.34089/jknr.2023.7.1.49>
21. Nam IY, Huh IS.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using medi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012;24:5-35.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51092
22. Shin J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113 p.
23. Manz C.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3.

24. Kim H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 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03. 83 p.
25. Lee HJ, Kang HS.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6; 12(3):355-364. <https://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628835719793.pdf>
26. Jun SY, Ko LS, Bae KR.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4;20(3): 342-352.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3.342>
27. Kwon MH, Kwon YE. A q-methodology study on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014;(29):29-48.
28. Kim NS, Ko YJ.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1): 211-218.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1>.
29. Cramer ME. Factors influencing organ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2002;3(2):97-107. <http://dx.doi.org/10.1177/152715440200300203>
30. Vandenhouten CL., Malaker CL, Kubsch S, Block DE, Gallagher-Lepak S.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gistered nurse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2011;12(3):159-167. <http://dx.doi.org/10.1177/1527154411425189>
31. Shin HJ, Cho MO.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pathy abilit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2):115-127.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115>
32. Yu MY, Lee SJ.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3;37(1):66-79. <http://dx.doi.org/10.5932/JKPHN.2023.37.1.66>
33. Lee DY, Cho JH.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10):561-569.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561>
34. Park HJ.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27-2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27>
35. Kang HS, Kim YY.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17;18(5):617-625.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17>